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보도자료

문자로 세계와 교류하고
문자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6. 8. 20.(목) 오전 09:3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디자인부	책임자	부장	이시종	032-290-2045
		담당자	대리	허아영	032-290-2049

“장바구니 들고 내 글씨 취향 쇼핑”
국립세계문자박물관《글씨상점》8월 23일 폐막

- 개막 후 관람객 6만 2천 명 돌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전 중 2번째 흥행 기록
- '취향 분석' 기반의 체험형 연출로 서예·캘리그라피 진입장벽 낮춰
- 손글씨 공모전·작가와의 대화·체험 교육 등 풍성한 성과 결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명인, 이하 박물관)의 기획특별전 《글씨상점: 당신의 글씨, 당신의 취향》이 오는 8월 23일(일) 약 4개월간의 전시 여정을 마무리한다. 개관 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전통 서예부터 현대 캘리그라피까지 글씨의 다채로운 매력을 ‘취향’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글씨 취향 쇼핑’ 콘셉트로 문턱 낮춰... 관람객 6만 2천 명 방문

《글씨상점》展은 폐막을 앞둔 8월 17일 기준, 누적 관람객은 약 6만 2천 명을 기록했다. 이는 박물관 개관 이후 열린 6차례의 기획특별전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흥행 비결은 관람객이 장바구니를 들고 글씨 카드를 고른 뒤, 계산대에서 12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글씨 취향을 확인하고 작품을 추천받는 ’체험형 상점’ 연출이다. 관람객들은 SNS를 통해 “가족들과 글씨 성향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새로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등 호평을 남겼다.

감상을 넘어 창작으로... 공모전·연계 교육 성료

이번 전시는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의 직접적인 참여와 창작으로 이어졌다.

박물관 개관 3주년을 기념해 열린 **손글씨 공모전 '오늘의 문자'**에는 총 1,90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3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5일까지 박물관 2층 로비에서 전시되며,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의 손글씨는 디지털 폰트로도 제작됐다.

전시 연계 교육인 **'세상에 하나뿐인 내 글씨'**는 총 10회에 걸쳐 65가족(150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응답자 149명이 '만족한다'고 답해 99.3%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작가·학예사와 직접 소통하는 문화행사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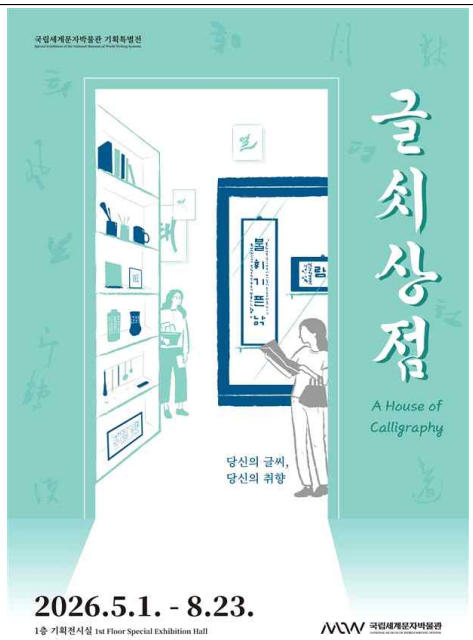
강병인·이상현·조용연 작가가 참여한 '작가와의 대화'(3회)를 열어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을 깊이 있게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가 직접 진행한 '특별 도슨트 투어'(2회)에는 사전 예약자 33명뿐만 아니라 다수의 현장 관람객이 참여하며 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은 "《글씨상점》은 글씨가 세대와 시대를 넘어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임을 확인시켜 준 전시"라며 "앞으로도 문자문화의 다양한 가치와 매력을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박물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씨상점: 당신의 글씨, 당신의 취향》은 8월 23일까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붙임 1. 전시 포스터
2. 이미지 자료. 끝.

붙임 1 전시 포스터



붙임 2 이미지 자료(4장)



[사진1] 전시 관람 모습



[사진2]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 전시



[사진3] '작가와의 대화' 조용연 작가 진행 모습



[사진4] '세상에 하나뿐인 내 글씨' 교육 참여 모습